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

이미호

선린대학교 간호학부 겸임교수

Prediction factors for dating sexual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Mee-Ho Lee

Adjunct Professor, Dept. of Nursing, Sunl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grasp the Prediction factors of the sexual violenc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ethods: A convenience sampling was performed for 500 students from one college located in Gyeongsangbuk-do, who agre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5, 2015, to October 23, 2015, by filling out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Among the 450 subjects excluding those with missing values, a questionnaire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was applied to 317 college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and variables and prediction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experiences were identified.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perience of sexual behavior before entering college ($\chi^2=6.52$, $p=.011$),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damage before entering college ($p=.045$), the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before entering college ($p=.007$) and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damage ($p=.002$) were variables related to the sexual violenc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R=4.831$, $p=.007$) and controlling dating partners ($OR=1.349$, $p<.001$) were predictors of dating sexual violence.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 group were compared to dating sexual violence non-experience group, the relative degree of controlling dating partners was high ($t=4.25$, $p<.001$) and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t=2.94$, $p=.004$).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r=.358$, $p<.001$) between controlling dating partners and gender role attitude.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sexual violence on dating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health education results will emerge if the contents of the school-ag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the control of dating partners, which are predicted factors of sexual violence on dating, are included in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Key words: Controlling dating partners, Dating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I. 서론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시기로 사춘기를 지나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며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로, 부모의 품을 떠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하는 시기이다(박선미, 2010).

특히 데이트를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적응이 촉진될 수 있는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성찰과 발달을 하게 된다(박옥임 등, 2005).

데이트란 한 쌍의 남녀가 미래의 상호작용, 정서적 헌신 혹은 성적 친밀감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이끌어 내는 상호 보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박옥임 등, 2005; Sugarman & Hotaling, 1989)을 의미하는데 대학생 시기에 이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성숙한 태도를 확립하기 전에 경험되는 데이트는 그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된 이성교제는 학업성취의 저하, 이성에 대한 불신, 자아존중감 손상, 성적 충동과 욕구의 조절문제,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용미와 김현옥, 2001; 장순복 등, 2000).

그 중 하나인 데이트 성폭력은 협박 또는 폭력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1992)에 의하면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정의된다. 데이트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과 비교해

보아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드물다(남원경, 2008). 이것은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모두 피해나 가해의 사실에 대해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관계나 성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거나(이은숙과 강희순, 2010) 데이트 성폭력을 사회문제가 아닌 사랑의 행위나 개인적인 성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남현미, 2003) 성폭력으로 인지한다고 하여도 관계성으로 인하여 문제화하기 어렵거나 은폐되기도 한다. 데이트관계는 '이상화된 친밀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상을 보이는 데, 저항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고, 이미 공포가 체화되어 저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배수희와 손승영, 2016).

201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데이트 성폭력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성인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시기의 성 가치관은 일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oss(1988)는 데이트 성폭력을 성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적 폭력이라고 하였고 Pieneau(1989)는 명백한 신체상해의 위협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동의하지 않는 섹스'로 정의하였다. 데이트 성폭력은 경우에 따라서 데이트강간으로 이해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성폭력은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절함에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남현미, 2003; 조주현, 1997).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8년 통계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상담건수 중 성폭력의 피해자 성별은 93.4%가 여성이며, 남성은 6.5%로 보고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성별은 전체 가해자의 90.2%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성인(20세 이상)은 74.4%이었다. 그러나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성별 구분 없이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영향(Burt, 1980), 잘못된 의사소통(Scully, 1990),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역할태도(손강숙과 정소미, 2016; 손승아, 2004; 이지연과 이은설, 2005; Impett & Peplau, 2003), 이성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성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폭력허용도(박선미, 2010; Gutek, 1989), 상대방의 행동이나 느낌을 자기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남현미, 2003; Stets, 1991)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Burt(1980)는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간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성폭행 가해경험과 폭력수용성 및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련성을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Muehlenhard & Linton(1987)는 성역할태도와 관련하여 이성 관계에서 남성주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성폭력과 성역할태도의 뚜렷한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Stets & Pirog-Good(1990)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한테 비하여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남현미, 2003) 성폭력 가해경험

의 선행요인으로써 상대 통제 욕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외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폭력(이병도, 2012)과 학교폭력경험(사공은희, 2007)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태도, 폭력허용도,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 등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실태를 알아본다. 셋째,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에 따른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수준을 비교한다. 넷째, 대학생의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경상북도 소재 일 전문대학교 3개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하여 교차비 1.4,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348개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50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하는 대상자

의 익명성과 자율성 보장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사용 및 폐기방법에 대하여 설문지와 동의서에 명시하였다.

2. 변수 및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년, 경제상태, 이성친구 유무, 대학입학 전 성행동 경험, 대학입학 전 성폭력 피해경험, 대학입학 전 성폭력 가해경험과 성장기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령기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성폭력 가해경험

종속변수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트 강간, 데이트 성추행, 데이트 성희롱의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Chronbach's α 값은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3) 데이트 상대 통제

독립변수인 데이트 상대 통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트 상대를 통제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척도이며 각 문항의 답변은 '거의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ronbach's α 값은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4) 성역할 태도

독립변수인 성역할 태도는 남성성과 여성성,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성차별성, 성의 이중규범을 내용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s α 값은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5) 폭력허용도

독립변수인 폭력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도구(1995)를 장희숙·조현각(2001)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0가지 상황 하에서 이성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닌지를 응답하도록 구성된 10문항의 Likert척도이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괜찮다' 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친구의 폭력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s α 값은 장희숙·조현각(2001)의 연구에서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서술통계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 실태 확인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

른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평균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데이트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고 데이트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관련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99명(21.9%), 여성이 353명(78.1%)으로 여성이 많았고 나이는 만 20세미만 246명(54.0%), 만20세~25세미만이 199명(44.0%), 만25세~30세미만이 7명(2.0%)으로 만 20세 미만인 대상자가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03명(22.8%), 2학년이 157명

(34.7%), 3학년이 171명(37.8%), 4학년이 21명(4.6%)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경제수준은 상위 수준 60명(13.3%), 중위 수준 282명(62.4%), 하위 수준 110명(24.4%)으로 중위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은 데이트 성폭력 가해 유무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전체 연구대상자 450명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317명(70.4%)에서만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실태를 조사하였다. 대학 입학 이전의 성행동 경험($\chi^2=6.52$, $p=.011$)과 대학 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경험($p=.045$) 및 성폭력 가해경험($p=.007$)은 모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성이 있었다. 성장기 가정폭력의 피해경험($\chi^2=2.50$, $p=.114$)과 학령기 학교폭력의 가해경험($p=.097$)은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학령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p=.002$)은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관련성

변수	n(%) or M±SD	성폭력가해 경험		χ^2	p	
		유	무			
		n(%)	n(%)			
성별	남성	99 (22.0)	10 (10.1)	89 (89.9)	.59	.441
	여성	351 (78.0)	27 (7.7)	324 (92.3)		
나이	<20	95 (21.1)	4 (4.2)	91 (95.8)	2.66	.264
	20~22	307 (68.2)	28 (9.1)	279 (90.9)		
	23~30	48 (10.7)	5 (10.4)	43 (89.6)		
		20.68±1.71				
학년	1학년	102 (22.7)	6 (5.9)	96 (94.1)	1.86	.601
	2학년	157 (34.9)	14 (8.9)	143 (91.1)		
	3학년	170 (37.8)	14 (8.2)	156 (91.8)		
	4학년	21 (4.7)	3 (14.3)	18 (85.7)		
가족의 경제수준	상	60 (13.3)	6 (10.0)	54 (90.0)	.36	.833
	중	281 (62.4)	23 (8.2)	259 (91.8)		
	하	109 (24.2)	8 (7.3)	101 (92.7)		
이성친구 유무	있다	317 (70.4)	37 (11.7)	280 (88.3)	<.001 [†]	
	없다	133 (29.6)	0 (0.0)	133 (100.0)		

(N=450)

변수	n(%) or M±SD	성폭력가해 경험		x ²	p
		유	무		
		n(%)	n(%)		
대학입학 이전의 성행동 경험 유무 [†]	있다 179 (39.8) 없다 271 (60.2)	22 (12.3) 15 (5.5)	157 (87.7) 256 (94.5)	6.52	.011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피해경험 유무 [†]	있다 25 (5.6) 없다 425 (94.4)	5 (20.0) 32 (7.5)	20 (80.0) 393 (92.5)		.045 [‡]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가해경험 유무 [†]	있다 2 (0.4) 없다 448 (99.6)	2 (100.0) 35 (7.8)	0 (0.0) 413 (92.2)		.007 [‡]
성장기 가장폭력 피해경험 [†]	있다 79 (17.6) 없다 371 (82.4)	10 (12.7) 27 (7.3)	69 (87.3) 344 (92.7)	2.50	.114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 [†]	있다 31 (6.9) 없다 419 (93.1)	8 (25.8) 29 (6.9)	23 (74.2) 390 (93.1)		.002 [‡]
학령기 학교폭력 가해경험 [†]	있다 22 (4.9) 없다 428 (95.1)	4 (18.2) 33 (7.7)	18 (81.8) 395 (92.3)		.097 [‡]

[†]표본수 317개, [‡]Fisher's exact test(p)

2.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실태

본 연구에서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317명 중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그룹은 37명(11.7%)이었으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그룹은 280명(88.3%)이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 내용은 (표 2)에 나타나있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는 17명(5.4%)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대의 외모나 성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있다' 15명(4.7%),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가 14명(4.4%), '상대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11명(3.5%),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벗은 몸까지 보려는 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쳐다본 적이 있다'가 10명(3.2%)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실태

문 항	(N=317)	
	그렇다 n(%)	아니다 n(%)
1.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17(5.4)	300(94.6)
2. 상대의 외모나 성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있다.	15(4.7)	302(95.3)
3.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14(4.4)	303(95.6)
4. 상대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11(3.5)	306(96.5)
5.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벗은 몸까지 보려는 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쳐다본 적이 있다.	10(3.2)	307(96.8)
6.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5(1.6)	312(98.4)
7.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4(1.3)	313(98.7)
8.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적이 있다.	3(0.9)	314(99.1)

문항	그렇다	아니다
	n(%)	n(%)
9.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 한 적이 있다.	2(0.6)	315(99.4)
10. 상대의 기본과 상관없이 E-mail로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1(0.3)	316(99.7)
11. 상대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1(0.3)	316(99.7)
12.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성기삽입 직전에 그만둔 적이 있다.	1(0.3)	316(99.7)
13.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0(0.0)	317(100.0)

* 450case 중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133case는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내림순으로 정렬하였음.

3.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비교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그룹(37명)과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 없는 그룹(280명)의 데이트 상대를 통제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경험이 있는 그룹 2.11±.70, 없는 그룹 1.60±.68이어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그룹에서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t=4.25$,p<.001).

두 그룹의 성역할 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그룹 2.01±.47, 없는 그룹 1.73±.56으로 나타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성역할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t=2.94$, $p=.004$). 반면 두 그룹의 폭력허용도를 비교했을 때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그룹 2.15±.1.09, 없는 그룹 2.43 ±1.0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1.48$, $p=.139$)(표 3).

〈표 3〉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 비교

(N=317)

변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		t	p
	유(n=37)	무(n=280)		
	M ± SD	M ± SD		
데이트 상대 통제	2.11 ± .70	1.60 ± .68	4.25	<.001
성역할 태도	2.01 ± .47	1.73 ± .56	2.94	.004
폭력허용도	2.15 ±1.09	2.43 ±1.05	-1.48	.139

4. 대학생의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상관관계

데이트 상대 통제는 성역할 태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r=.358$, $p<.001$), 폭력허용도와는

($r=.137$, $p=.016$)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와 폭력허용도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75$, $p<.001$)(표 4). 세 변수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예측변수로서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표 4〉 대학생의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의 상관관계

(N=450)			
	데이트 상대 통제	성역할 태도	폭력허용도
	r(<i>p</i>)		
데이트 상대 통제	1		
성역할 태도	.358(<.001)	1	
폭력허용도	.137(.016)	.175(<.001)	1

5.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우도비(-2LL)는 180.166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예측변수들의 설명

력은 25.3%이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변수는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p*=.007)과 데이트 상대 통제(*p*<.001)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던 경우 Exp(1.575)는 4.831으로,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경우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은 4.831배 증가하는

〈표 5〉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의 예측요인

(N=317)							
	B	S.E.	Wald	<i>p</i>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수)	-5.257	1.015	26.832	.000	.005		
대학입학 이전의 성행동 경험 유무	.448	.433	1.071	.301	1.565	.670	3.655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피해경험 유무	.790	.714	1.225	.268	2.204	.544	8.930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가해경험 유무	20.904	28137.806	.000	.999	-	-	-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153	.506	.091	.763	.859	.319	2.314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	1.575	.585	7.243	.007	4.831	1.534	15.210
학령기 학교폭력 가해경험	.072	.869	.007	.934	1.074	1.196	5.904
데이트 상대 통제	.300	.077	15.199	.000	1.349	1.161	1.569
성역할 태도	.037	.025	2.198	.138	1.038	.988	1.091
폭력허용도	-.031	.020	2.547	.110	.969	.933	1.007
-2 Log likelihood=180.166			Nagelkerke R ² =.253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상대 통제의 경우 Exp (.300)는 1.349으로, 점수가 1증가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 경험은 1.34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학입학 이전의 성행동 경험 유무,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피해경험 유무,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가해경험 유무,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학령기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IV. 논의

성인이 시작되는 대학생 시기의 성폭력의 경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호감을 가지고 이성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시기에 의도하지 않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일생의 성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각수성을 강화하는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해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성별, 나이,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은 데이트 성폭력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의 차이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와 관련이 없었다고 한 결과(남현미, 2003)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했으나 나이와 학년이 증가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확률이 증가하고(남현미, 2003)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성폭력 가해 확률이 높았다고 한 결과(남원경, 2008)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의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대상자 특성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출을 통해 지역적, 문화적인 특성이 유사

한 표본을 선정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표집된 이유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 변수는 대학 입학 전의 성행동 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피해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가해 경험 및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었으나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과 학령기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대학 입학 전의 성행동 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피해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가해경험은 이미 과거에 부정적인 성적 경험을 한 경우로 잘못된 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행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충동과 공격성이 높으며 특히 피해경험 집단의 경우 가족 간 정서적 지지가 결핍되어 가족 간 인정, 관심, 대화, 정서적 안정감이 낮고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공격성을 배워 폭력행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이병도(2012)는 성장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이병도(2012)의 연구 대상은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 나이와 성장배경 및 성숙도의 차이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병도(2012)는 비록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이 성장하면서 형성된 능력과 경험의 영향으로 데이트 성폭력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하여 긍정적 성향을 나타내는 외생변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실태조사 결과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317명 중 11.7%에 해당하는

37명의 대학생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가해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행위 중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5.4%, '상대의 외모나 성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있다' 4.7%,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4.4%, '상대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3.5%의 순서대로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외 '상대의 기분에 상관없이 벗은 몸까지 보려는 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쳐다본 적이 있다' 3.2%,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인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남현미(2003)의 대학생 대상의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강간, 강간미수 등은 분명하게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키스나 애무 행위는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보다 약한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등 성적 위협이나 신체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반면 성적 비속어의 사용, 시선 또는 심리적인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 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역시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성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데이트 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유외숙과 박경, 2004)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이지연과 이은설, 2005; Warshaw, 1994) 성폭력 가해자는 가해경험에 대해서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병도, 2012)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가해실태보다 실제 더 많은 데이트 성폭력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성폭력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강조하여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그룹과 경험이 없는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가해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데이트 상대 통제와 성역할 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남현미(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예지와 서미경(2014)은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강간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였고 손승아(2004)는 전통적인 성역할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서 관용적이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여성에서 성역할 태도가 높은 경우 데이트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성을 약화시키고 성폭력 피해상황으로 귀결되는 경로가 유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을 남성성으로 인식해온 잘못된 믿음과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거나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성찰하고 제도적으로 성적 불평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은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 상대 통제로 나타났다. Riggs & O'Leary(1989)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친구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경험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학령기에 접어들면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학교 또래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학교에서의 폭력 환경에 노출되면 폭력의 피해와 사용방법을 익히게 되어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에서도 곤란을 겪게 된다고 한다(사공은희, 2007; Gilmartin, 1987). 결국 폭력을 경험한 폭력의 피해자가 잠재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데이트 성폭력은 주로 2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 시기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를 예

방할 수 있는 건강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손승아, 2004)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근거중심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성인지각수성을 강화하고 가해경험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지도를 높이는 등 건전한 양성평등문화 기반으로 한 심리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성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성폭력 가해 경험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 경험에 대한 예측변수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대학의 일부 학생을 학과별로 편의 표출하여 남녀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폭력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전제한다고 하여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경험에 대한 편중된 대상자의 성가치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적절한 표본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 넷째, 성역할 태도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예측요인으로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으나 데이트 상대 통제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서 그 역할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못하였다. 데이트 상대 통제를 매개변수로 하여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 및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 요인을 찾아내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도되었다.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강간,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한 개념을 적용한 논문은 제한적이다. 연구 결과 대학 입학 전의 성행동 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피해경험, 대학 입학 전의 성폭력 가해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 있는 변수였으며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은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 상대 통제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그룹은 가해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하여 데이트 상대 통제의 경향이 높으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일생의 성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성인기가 시작되는 대학생 대상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입식 성교육이 아닌 양성평등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깨닫도록 하여 올바른 성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는 성인지각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지적 측면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 및 데이트 상대 통제 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측면의 증재를 함께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보건교육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용미, 김현옥. (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2. 남원경. (2008). 미혼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6. 손승아. (2004).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건강교육. *여성건강*, 5(2), 87-103.
7. 박선미. (2010).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박옥임, 배영숙, 김정숙. (2005). 한국 고등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2), 27-37.
9. 배수희, 손승영. (2016).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26(1), 93-124.
10. 유외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11. 이병도. (2012).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이성교제 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은숙, 강희순. (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66-275.
13. 이지연, 이은설. (2005). 애착, 강간통념 및 성적 자율성과 데이트 성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346-347.
14. 장순복 외 5명. (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한국간호과학회지*, 31(5), 921-931.
15. 장순복,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921-931.
16.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회지*, 8, 179-204.
17. 조주현. (1997). 성, 여성주의, 윤리. *한국여성학*, 13(2), 7-39.
18.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19.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
20. 한국성폭력상담소(2018). 상담통계.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4848&board_md=view
21. Burt, M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22. Gilmartin BG. (1987). Peer Group Acceptance of severe Love-Shyness in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55, 457-489.
23. Gutek, B. (1985) Sex and the workplace, Jossey Bass Publishers.
24. Impett, EA., Peplau, L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 research*, 40(1), 87-100.
25. Koss, MP., Dinero, TE., Seibel, CA., Cox, SL. (1988).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1), 1-24.
 26. Muehlenhard, CL., Linton, M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86.
 27. Pineau, L. (1989). Date rape: A feminist analysis. *Law and Philosophy*, 8(2), 217-243.
 28. Riggs, DS., O'Leary, K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raeger Publishers.
 29.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 : Unwin Hyman Ltd.
 30. Stets, JE., Pirog-Good, MA. (1990). Interpersonal control and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3), 371-394.
 31. Stets, J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97-114.
 32. Sugarman, DB., Hotaling, G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raeger Publishers.
 33. Warshaw, R., Bateman, P. (1994).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